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4.06



하나님 말씀 - '들음'에서 나는 믿음

성경책과 오디오 성경을 요청하는 기독교 제한국가의 성도들

성경 밀반입 사역에 따른 대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배포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핍박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하박국 2:14)”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대가입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공격과 투옥, 고문,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며 배포하고 있습니다.

1967년, 루마니아의 리처드 웜브란트Richard Wurmbrand목사와 사비나 웜브란트Sabina Wurmbrand 사모의 창립 이래, 순교자의 소리는 최대한 많은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뚫고 동유럽의 ‘구소련 연맹’ 국가들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산권 국가에 성경을 밀반입하는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국가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포하는 사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 그들 나라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인내로써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성경책과 디지털성경을 어떻게든 공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터키, 북한, 라오스, 중국 등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무신론이 만연한 공산국가인 쿠바에서 성경을 읽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쿠바 성도들의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실수

누레틴Nurettin은 터키 동부 쿠르드족Kurdish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하지만 그는 이슬람교의 알라를 진짜 믿은 적이 없었다.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신의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가 말했다.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누레틴은 쿠르드족의 정치나 돈벌이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로써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한 친구가 외국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누레틴을 불렀다. 호기심에 응한 그 만남이 끝날 때쯤 낯선 외국인들 중 하나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책 한 권을 누레틴에게 건넸다. 성경이었다. 그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읽어보기로 했지요”라고 했다. 성경을 읽던 중 마태복음 7장 7~8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잘못 걸린 전화

1년 후, 누레틴은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에게 성경을 주었던 외국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잘못해서 누레틴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원래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잘못’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누레틴은 자신이 그 외국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



터키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세기였지만, 오늘날 터키 인구 중 기독교인은 1% 미만이며, 96%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나기로 약속했다. “버스에서 누레틴이 내릴 때 ‘어? 저건 누레틴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그 외국인이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누레틴은 깜짝 놀랐다. 이 외국인과 함께 나온 쿠르드족 남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쿠르드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었고, 누레틴은 쿠르드족 기독교인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누레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내 마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쿠르드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레틴이 말했다.

이후 요한계시록을 읽던 어느 날, 누레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계셨어요. 난 곧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레틴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누레틴은 몇몇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환상과 결단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중 한 사역자가 기독교 기본 신앙에 대해 그를 양육해주기 시작했다. 그 후 일 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누레틴은 정치에 열성적인 가족들에게는 새로 찾은 신앙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된 것이라면 오히려 상관이 없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열혈 무슬림 이웃들이 받아들여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은 극도로 보수적이고 굉장히 열성적인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은 매우 강하고 난 그저 이제 겨우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가 말했다.

2010년 4월 4일, 누레틴은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어느 날 이른 아침, 경찰이 그를 찾아왔다.



자신을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누레틴



현재 누레틴은 쿠르드족 신자들로 구성된, 작지만 성장하는 교회를 이끌고 있다.

철창 너머의 성경

몇 시간 동안 누레틴을 심문하며 주로 쿠르드족의 정치 활동에 관해 묻던 경찰은 놀랍게도 그의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었지? 왜 기독교인이 된 거야?” 경찰들이 물었다. 누레틴은 누군가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인 것들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도문과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누레틴이 말했다.

결국 누레틴은 감방에 갇혔다. 하지만 그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다. 자신의 제한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심문관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음을 깨달았다.

터키 당국은 누레틴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누레틴은 점차 감옥 생활에 적응해갔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식으로 기도하며 위안을 얻었다. 나중에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열심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읽었다.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누레틴에게는 수입이나 사회적 인 지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졌다. 누레틴은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무엇보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마음도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석방 후 몇 달 동안, 누레틴은 세속적인 것들을 쫓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정치적인 일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전에 정치권과 연관이 있었던 누레틴의 전적을 이유로 여전히 그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겼다. 결국 18개월 간의 자유를 끝으로 당국은 다시 누레틴을 체포해 2년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수감 이후 누레틴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두 번째 수감 생활의 환경은 이전보다 덜 제한적이라서 누레틴은 더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성경을 감옥까지 들여와 다른 수감자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었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려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수감 생활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내게 질문을 했고, 난 대답해 주었습니다.” 누레틴이 말했다.

감옥에서 강대상으로

두 번째 석방 후 누레틴은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현재 그는 쿠르드족 신자들로 구성된, 작지만 성장 중인 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 예배를 지켜보곤 해요.” 누레틴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쿠르드족 기독교인들을 보고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르드족 교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자들이 예배 중에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누레틴이 감옥에서 전도했던 몇몇 사람이 석방 후 찾아오기도 했다. 누레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수년 전 처음 성경을 받아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을 더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남아있는 생명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누레틴은 말했다.

2024년 6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	3	4	5	6
 소말리아 성경은 불법이지만, 온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도록	 쿠웨이트 개종자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양육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만 오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전도와 양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베냉 어두운 주술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파괴되도록	 카타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위해 (빌 3:7)
9	10	11	12	13
 투르크메니스탄 비밀 교회 모임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우즈베키스탄 친밀한 교제와 협력 전도의 본보기가 되는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에티오피아 소말리족 최대 거주지인 에티오피아 동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카메룬 보코하람의 공격이 잦은 북부에 성경을 배포 중인 사역자들을 위해	 요르단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6	17	18	19	20
 베트남 행정 당국에 신분증명 서류를 압수당한 성도들을 위해	 스리랑카 칼리타스의 순교를 애도하며 그의 사역을 잇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말레이시아 말레이족 기독교인들이 친교와 제자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사우디 사람이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	 말디 복음을 전한 대가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목회자들을 위해
23	24	25	26	27
 부탄 불교의 수호자로 알려진 부탄 국왕이 만왕의 왕 주님께 무릎 꿇기를	 타지키스탄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뒤 홀로 남은 타마라의 건강을 위해	 콜롬비아 십 대들이 게릴라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니제르 오토바이를 타고서 사막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믿음을 부인하라고 압박당한 니아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30				
 쿠바 당국자들의 정기적인 압박에 담대하게 맞서는 목회자를 위해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1
	라오스 정령숭배에 갇힌 부족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와 구원을 발견하도록
7	8
시리아 계속된 위협에도 시리아에 남아 사역 중인 사역자들을 위해	알제리 비밀 기독교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14	15
탄자니아 무슬림 핍박자들의 공격에서 살아 남은 핍바섬 기독교인들을 위해	코모로 소규모 기독교 모임이 정부나 지역 공동체에 발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21	22
키르기스스탄 성경 배포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가 개인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수단 최근 지원받은 성경 4만 권이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28	29
에리트레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역경과 규제에도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	순교자의 날 가족, 친구, 교회와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세요. vomkorea.com/dotcm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2022년,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약 1,500명에게 성경과 성탄절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가장 비극적인 곳, 즉 전쟁 지역이나 러시아 점령지, 특히 신앙 때문에 심한 박해와 고통을 겪는 기독교 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올해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액션 바이블 Action Bible' 신약성경 1만 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액션 바이블은 오늘날 어린이들을 위해 복음을 이야기 만화로 풀어낸 성경입니다. 선명한 전면 컬러 삽화들과 연대순으로 배열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핍박받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의 자녀뿐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이 액션바이블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주세요!

1만원으로 성경 1권을,
10만원으로 성경 10권을,
100만원으로는 성경 100권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헌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성경'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성경'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동일한 유혹을 받지만 동일한 은혜로 이겨내다

수년 동안, 데이비드 David는 오직 재단사가 되기만을 바라왔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다. 데이비드는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무슬림 인구가 50% 이상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에 뛰어들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 처음에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데이비드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털어놓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학교를 가라고 말해주었다. “당시 집에는 돈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 가라’고 하셨어요”라고 데이비드는 회상했다.

최근 북한 지하교인들이 순교자의 소리에 전해온 편지를 보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유혹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일한 은혜로 그 유혹들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는 종종 지하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기독교인이거나, 우리의 즉각적인 도움이 시급한, 훨씬 더 연약한 기독교인으로 묘사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유혹에 직면하며, 동일한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3-4만 권가량의 조선어(북한 방언) 성경을 인쇄본과 전자성경으로 제작하여, 북한 내부 주민들과 중국에 있는 인신매매로 팔린 북한 여성 및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때로 현장 사역자를 통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다음은 북한 사람들의 편지들로, 발송자를 식별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감추기 위해 일부 단어 및 표현이 변경되었음을 밝힌다.

발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들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장차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릴 더 잘 아시고, 우리 배고픔과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늘 지켜주십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믿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모든



▲ 조선어 스테디 성경을 손에 든 탈북민

잘못을 용서해주고 우릴 붙들어 주시며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굶어죽는 데서 우리를 건져 밝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받기만 하는 죄스러운 몸이지만, 하나님은 우릴 버리지 않으시고 매순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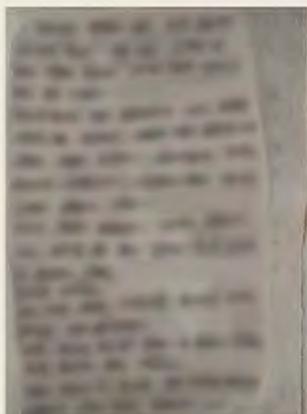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에는 눈물겹게 사랑하고, 외로움에 아파서 울고, 굶주려 죽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은 직계 가족이 아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나 목회자, 신학교도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하셔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읽은 편지들은 현재 북한 내부로 성경을 전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지금도 성경은 계속해서 북한 내부로 반입되고 있으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한 주민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변화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을 전달하고 받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경을 요청하고 수취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쇄본이나 전자기기 등 그 형식이 무엇이든, 어떤 배포 수단을 사용하든 북한으로 성경을 반입하는 사람은 기소, 투옥, 심지어 사형에 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북한 지하교인이 순교자의 소리에 보내온 편지



▲ MP3 플레이어로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는 북한 주민

현장소식

중국

엄격한 제한 지역 중국 성도들에 오디오 성경 700여 개 배포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배포하는 데 집중했고, 중국 내 이런 지역에 우편으로 기독교 자료를 보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 직접 모든 오디오 성경을 전달했다.

과거 이들 특정 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엄중 단속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소리는 통신 및 보안 측면에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700개의 오디오 성경이 모두 안전하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였다.

오디오 성경을 받은 한 중국 기독교인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오디오 성경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생활 형편도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 중국 시골 기독교인에게 배포된 오디오 성경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중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중국 기독교인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멘.”

라오스

핍박 가운데 성경을 요청하는 라오스 성도들



▲ 지난해, 주민들이 파괴한 집과 교회 건물 잔해 한가운데 서 있는 라오스 기독교인들

라오스 외딴 마을의 많은 부족들이 정령을 믿고 조상을 숭배한다. 그들은 마을에 질병 같은 게 돌면, 같은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마을을 떠나도록 강요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과 교회, 그리고 성경까지 다 파괴당한다.

작년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집이 철거된 기독교인 가정이 최소 1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들 라오스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불에 탄 성경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집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한다. 라오스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새 성경을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라오스에서 성경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성경 2,000권을 배포하여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평범한 조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전해준 동료,
존 로스 누가복음. 띄어쓰기와 문법, 철자를 교정하여 현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21세기 독자판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10,000원

조선어/쉬운 영어 스테디 성경(창세기/신약)

조선어 성경과 쉬운 영어로 이루어진 대조성경. 조선어 성경 창세기와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클리프 스테디노트를 번역하여 첨부한 스테디 성경.
영어를 전문 목회자나 인도자 없이 혼자서도 단어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쉬운 주석을 첨부함.

15,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창세기/신약)

포켓용 작은 성경으로 창세기와 신약으로 구성.
위클리프 스테디노트를 번역하여 첨부한 스테디 성경.

15,000원



2024년, 탈북민들의 국악 공연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을 초청하세요!

- 공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서울/대전/부산/그 외 지역)
- 공연무대: 음향, 분장, 조명(렌탈 포함)
- 촬영: 공연 상황 영상 및 사진 촬영

위 분야에 자원봉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면
010-3151-2065로 연락주세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신/간/안/내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전해준 영적 유산.
오늘날 북한 지하교인들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
15,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21 - 콥트 순교자들의
명예 다녔다』
10,000원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